

서울교육감 선거 보수 단일화 사실상 무산...조전혁, 제2단일화 기구 '불참'

등록 2024.09.24 10:07:20



[서울=뉴스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13일 서울 지하철 3호선 충무로역에 서울특별시 교육감 보궐선거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2024.09.13. hwang@newsis.com

[서울=뉴스시스] 양소리 기자 = 보수 교육계의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 제2기구인 '서울보수교육감 후보단일화 선정위원회 (선정위)'가 24일 '공개 오디션'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은 선정위의 일정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 전 의원 측 관계자는 뉴스시스에 "이것(선정위)도 깨지면 제3, 제4단일화 기구가 나온다"며 "유권자들께서 자연스럽게 단일화를 이끌어주실 것"이라고 불참 배경을 전했다.

이미 제1단일화 기구인 '서울교육감 중도우파 후보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가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 후보를 오는 25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선정위가 후보 참여 의사와 무관하게 자체적인 단일화 일정을 통보한 데에도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조 전 의원 불참에 따라 선정위가 이날 오후 진행하는 보수 후보 '공개 오디션'에는 김영배 성결대 교수,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참석하게 될 전망이다.

문제는 선정위에서 자체적으로 단일 후보가 도출됐을 때다. 이 경우 통대위에서 추대된 후보, 선정위에서 추대된 후보, 그리고 독자 출마를 선언한 윤호상 서울미술고 교장까지 최소 3명의 후보가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 전 회장과 홍 교수는 전날(23일) 통대위 단일화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최종 결과 발표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